

權五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일시 귀국 대한변협 제1회인권환경대회 주제발제



▲ 토론발제를하고있는권오곤 부소장

권오곤權五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2월 2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일시 귀국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회 인권·환경대회의 청주시 라마다플라자호텔 대회에 참석하였다. 충북 청주는 권오곤 판사의 고향이다. 이날 대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김정일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 발제를 한 그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남북행위를 심도있게 조사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김정일 등 북한 지도자들을 반인도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ICC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ICC가 북한을 자체조사하거나 기소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군 포로 등 한국과 일본인 남북자 문제에 관한 한 해당 범죄가 ICC가입국에서 발생했으므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

해 한국과 일본이 의지를 가진다면 재판회부를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ICC규정상 2002년 이후의 범죄만 다룰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인 남북자 문제는 북한이 송환요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말했다. 그는 또 'ICC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루고 있는만큼 지도자는 호의호식하는데 주민은 굶주린다는 것만으로는 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김정일이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계획·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오곤 부소장은 대학에서부터 1등제조기라 일컫던 수재로

서 20여년을 국내 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한국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유창한 어학실력 등의 자질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 진출했는데 2008년부터는 형사재판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다. 검교공파 사복재思復齋계 시조후 35세인 권오곤 판사에 대해서는 본지가 2001년 8월 1일자 제32호에서 특집기사 '이달에 찾아간 인물'로 탐방취재해 크게 보도한 바 있다. 당시의 특집기사 표제는 '국제전범재판관으로 나가는 사법대사·홍안일수紅顔逸秀의 권오곤 판사·선향은 봉화 입석立石의 검교공파 사복재계·일가 10여인 남녀가 모두 박사 교수·한 사람 등외가 없는 연련벽주連聯璧珠의 백미'였다.



▲ 본지의 회견대담에 응할 당시의 권오곤 판사

본지 權奇奭 객원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譜學 박사학위 받아



본지의 객원기자客員記者로 10여년 동안 많은 연구개발 및 탐방 기획 기사를 써온 권기석權奇奭씨가 2010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의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위논문은 '15-17세기 족보 편찬과 참여계층 연구'로서 한국사에서 족보학 분야로 받는 박사학위의 제1호가 되고 있다. 지도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의 김인걸金仁杰 교수, 심사위원장은 동국대 국사학과의 노명호盧明鎬 교수이고 논문심사위원

은 전남대의 김경숙金景淑, 서울대의 오수창吳洙彰·정금식鄭肯植 교수이다.

본문이 269면에 부표가 190여면으로 총465면에 달하는 분량의 논문은 앞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문이 3부로 나뉘어 1부가 15-16세기 내외종합보內外綜合譜의 형성과 수보修譜 양상, 2부가 16-17세기 동성보同姓譜의 재편과 부계종족父系宗族의 형성, 3부가 17세기 수보 활성화와 참여계층 확대로 대별되어 각부에 2,3개 절과 다시 절마다 2,3개 소절로 세분되어 논술되고 있다. 그 분량만 일반 박사학위논문의 갑절을 상회하고 있다.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교수들이 그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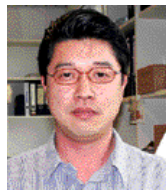
굴연구의 포용량이 과대함에 우려를 표했다는 후문이다.

권기석 박사는 서울의 인창고와 서울대 국사학과, 동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을 거쳐 규장각의 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로 재직중 이번에 박사과정 수료 6년차에 학위를 받게 되었으며 학위취득과 동시에 명지대 등에도 출강을 하게 되었다. 그는 추밀공파 문충공 양촌계 시조후 36세世로 충남서천 한산韓山 문중 수초당遂初堂 문정공文貞公(25世)의 11대손이며 본지 권오훈權五焄 발행인의 차남이다. 부친이 한글판안동권씨대동세보를 편찬할 때 재학중 5년여 동안에 이를 도와 불철주야로 혹사하며 그 고난상을 목도한 바, 이때부터 부심하여 전인미답 상태인 한국의 족보학 분야에 대한 계통을 세워보겠다는 일념이 이같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게 주위의 평가이다.

인·물·動·靜



권구성權九成 (추밀공파 문충공 양촌계 39世) 씨는 2009년도 제46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였다. 제약회사 중역인 부친 권용기權容基씨와 고등교사인 모친 선산善山 김현숙金賢淑씨의 장남으로 1982년 7월 14일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에서 나서 서울 배명고를 나와 고려대 전자전기공학과에 진학하여 4년 재학중에 패거리를 이룬 그는 보통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충북도선관위 사무국장으로 퇴임 후 안동권씨청주청원종친회장 등을 지내고 2009년 자서전 '어둠의 등불이 되고자'를 펴내 본지 2009년 3월 1일자 제123호에 소개되었던 하도荷島 권순정權純貞옹의 손자로 그 소문중의 12대 주손胃孫이다.



권지안權志顔 (추밀공파 정헌공·남강공계 36世)씨는 금년 봄 학기에 단국대학교 죽전분교 분자생물학과 교수로 취임했다. 남강공南岡公 휘상常의 3남 지신공知申公 증우의정 휘 희禧계로서 권혜택權惠澤씨의 3남 중 장남으로 1972년 2월 6일 출생하여 연세대 생물학과에서 학부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수료하고 생물학으로 이학박사를 취득하고 독일 유학으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 단국대 분자생물학과 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과거 정헌공종회장正獻公宗會長 등을 맡아 실묘상태의 민통선내에 있던 선대 묘역에 대한 출입 치료 등의 위선사에 헌신한 권이도權億道公의 손자이다. 또한 그 부인 윤혜섭尹惠燮과는 연세대 생물학과 의 동창생으로 결혼 후 함께 박사를 하고 독일에 유학을 다녀왔으며 현재 부인도 건국대 생명과학과 교수로 취업하여 있다.



권순민權純珉 (추밀공파 문충공·문경공계 37世)씨가 2010년 2월 19일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대학원에서 논문 '이중사선 센서비열을 통한 고속측하중계측기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남원시 동충동 출신으로 한양대 건축과를 나와 육군 영관장교로 예편하여 부산 해운대구에서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권혁진權赫璉씨와 밀양密陽 박옥자朴玉子씨 사이 3형제 중 셋째로 1972년 3월 19일 부산 광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한양대 교통공학과 동대학원 수료후 현재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이번에 그가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의 주요지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무정차주행상태에서 계량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무인무정차 과적단속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것'과 '한국 내 과적단속의 기술적, 인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무인무정차 과적단속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능동추추에 10년을 연재해온 천작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03면 · 값 1,300원 · 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 807호 우110-044
전화 02) 734-3085 · 732-9139 / 전송 02) 738-8935
전자우편 haedogee@kornet.ne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려들어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렵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 국어화하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한다.